



#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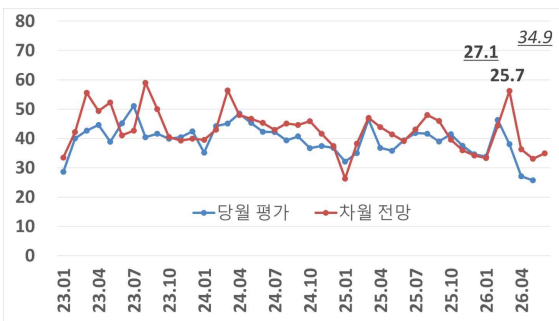
## I. 2026년 5월 건설경기평가 및 2026년 6월 전망

### ■ 5월의 경기평가는 연이어 악화, 차월은 다소 반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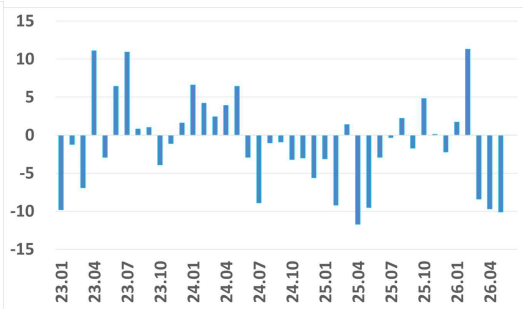
- 5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25.7로 전월(27.1)보다 소폭 하락한 반면(-1.4p), 전년 동월(35.8) 대비 낮은 수준(-10.1p)을 기록하며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음. 차월(34.9)에는 일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9.2p), 향후 중동 사태의 종전 합의 및 사후복구 따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그에 따라 공사원가의 상승과 자재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임.
- 수도권은 25.7(35.2→25.7)로 전월 보다 하락(-9.5p)했지만, 지방은 31.4(23.2→31.4)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8.2p).

〈표-1〉 2026년 5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26년 6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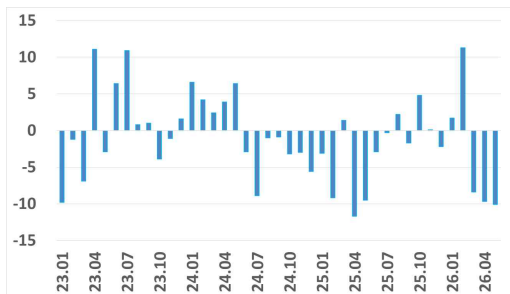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6년 5월 평가	25.7	35.8	25.7	31.4	22.8	18.8
2026년 6월 전망	34.9	39.1	34.9	43.1	30.7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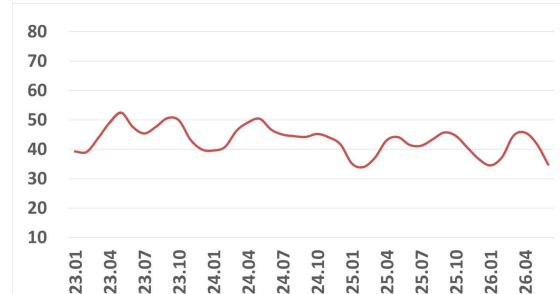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전망의 이동평균선(3개월)〉

##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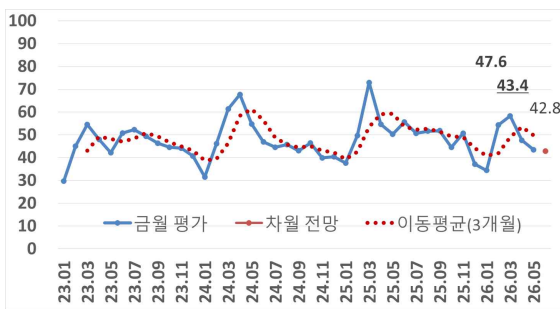
###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은 하락, 하도급은 전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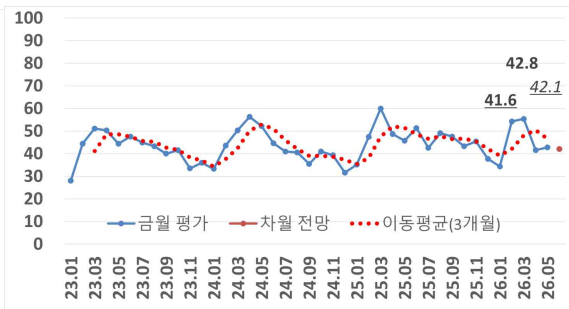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43.4(47.6→43.4)로 전월에 이어 하락했으며(-4.2p), 이는 전년 동월(50.3)과 비교하면 더 낮은 수준임(-6.9p). 하도급수주는 42.8(41.6→42.8)로 전월과 유사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1.2p), 고질적인 수주가격 경쟁에 최근의 중동사태가 더해지면서 응답업체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조사결과도 매월 엇갈리는 상황임.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70.4→43.4)에서의 하락폭이 컸으며(-27.0p), 지방(36.6→68.6)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32.0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전월과 달리 수도권(74.1→42.8)에서 크게 하락했으며(-31.3p). 지방(25.9→70.6)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44.7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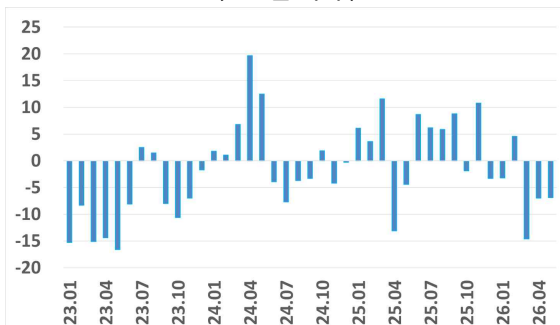
구분	구분	총합		지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6년 5월 평가	43.4	50.3	43.4	68.6	30.7	71.9
	2026년 6월 전망	42.8	49.7	42.8	68.6	29.7	81.3
하도급 수주	2026년 5월 평가	42.8	45.7	42.8	70.6	28.7	81.3
	2026년 6월 전망	42.1	47.7	42.1	64.7	30.7	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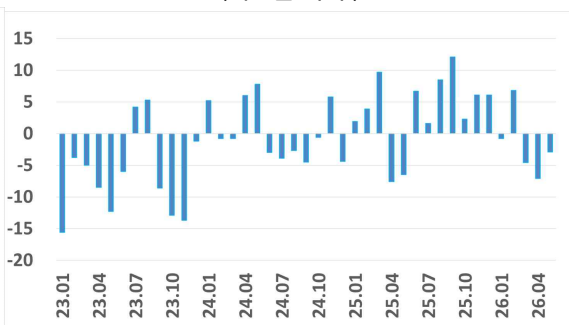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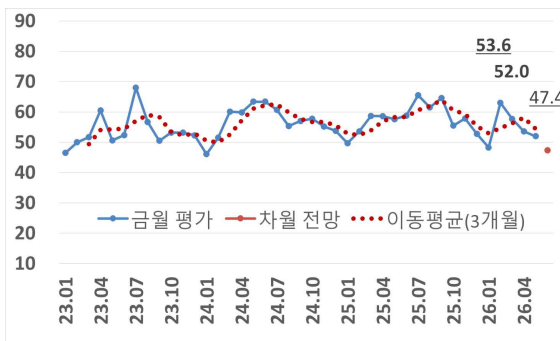
##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 모두 전월보다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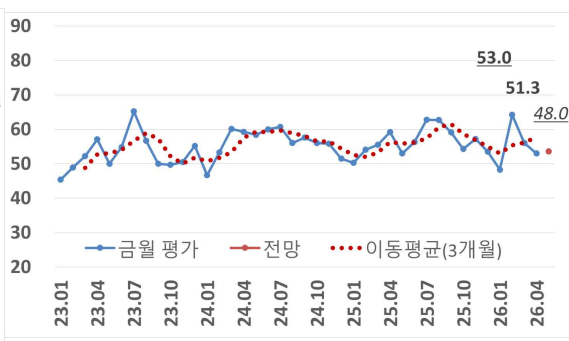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52.0(53.6→52.0)으로 별다른 개선이 없었으며(-1.6p), 차월(47.4)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4.6p). 일부 업체들은 지방선거(26.6.3) 이후의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상황임.
  - 수도권(72.2→52.0)은 하락(-20.2p), 지방(44.6→62.7)은 상승함(+18.1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51.3(53.0→51.3)으로 전월보다 소폭 낮았으며(-1.7p) 전년 동월(53.0)에도 미치지 못했음(-1.7p), 차월(48.0)은 오히려 금월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고(-3.3p), 지역별로는 응답 결과에 편차를 보였음
  - 수도권(77.8→51.3)은 하락(-26.5p), 지방(41.1→68.6)은 상승함(+27.5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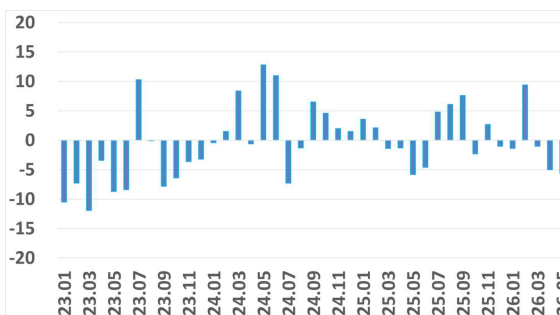
구분		총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6년 5월 평가	52.0	57.6	52.0	62.7	46.5	68.8
	2026년 6월 전망	47.4	55.0	47.4	64.7	38.6	75.0
자금조달	2026년 5월 평가	51.3	53.0	51.3	68.6	42.6	75.0
	2026년 6월 전망	48.0	54.3	48.0	62.7	40.6	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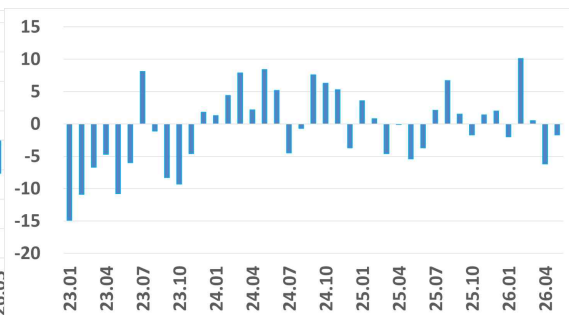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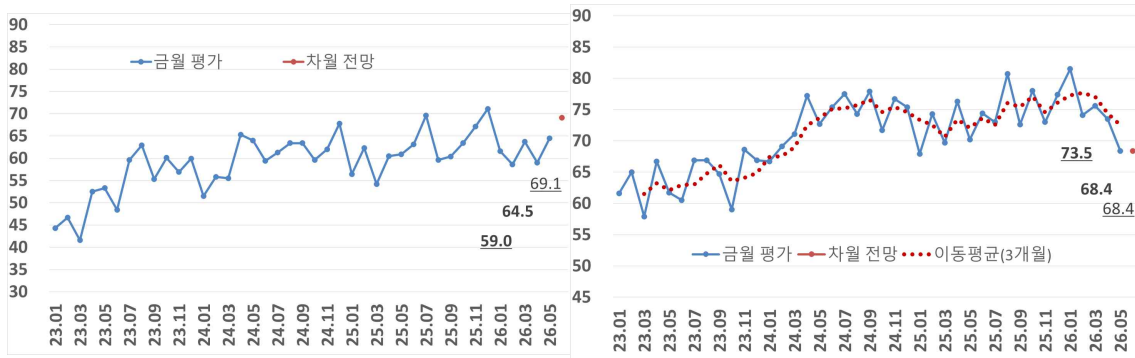
###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 인건비체감은 소폭 상승, 기능인력수급은 연이어 하락

- 인건비체감<sup>1)</sup> 경기실사지수는 64.5(59.0→64.5)로 전월 대비 상승했으며(+5.5p), 이는 전년 동월(60.9)보다도 높은 수준임(+3.6p), 그러나 이를 업황의 (일시적인) 개선으로 판단하기는 충분치 않기에 향후의 지수 변동을 지켜봐야 할 것임.
  - 수도권(55.6→64.5)은 전월 대비 상승(+8.9p), 지방(60.7→52.9)은 하락함(-7.8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는 68.4(73.5→68.4)로 전월에 이어 하락했으며(-5.1p), 이는 전년 동월(70.2)보다 낮은 수준임(-1.8p).
  - 수도권(70.4→68.4)은 소폭 하락(-2.0p), 지방(75.0→62.7)은 연이어 하락함(-12.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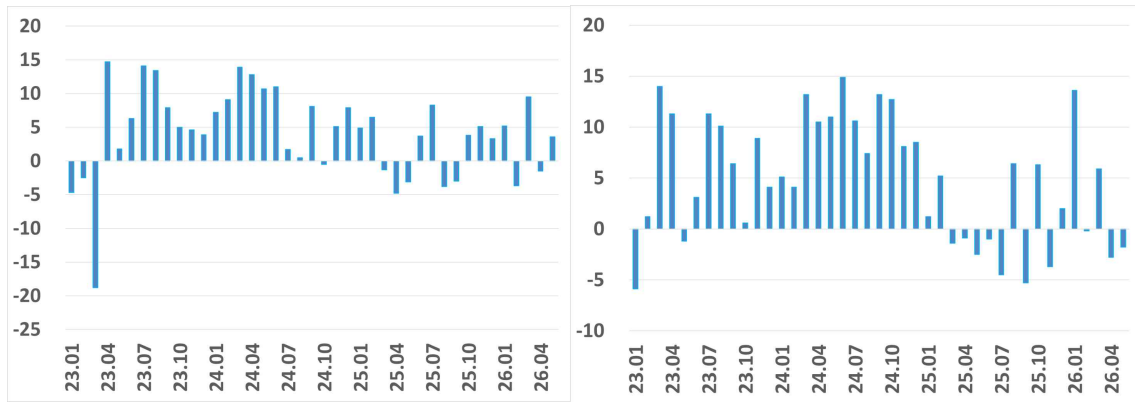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6년 5월 평가	64.5	60.9	64.5	52.9	70.3	37.5
	2026년 6월 전망	69.1	60.3	69.1	64.7	71.3	53.1
인력수급	2026년 5월 평가	68.4	70.2	68.4	62.7	71.3	59.4
	2026년 6월 전망	68.4	70.2	68.4	64.7	70.3	59.4



〈인건비 체감〉

〈인력수급〉



〈인건비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인력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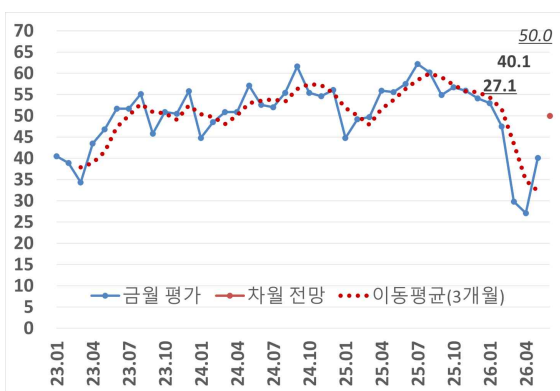
##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수급<sup>2)</sup>)

### ■ 자재비지수와 자재수급지수는 기저효과로 전월 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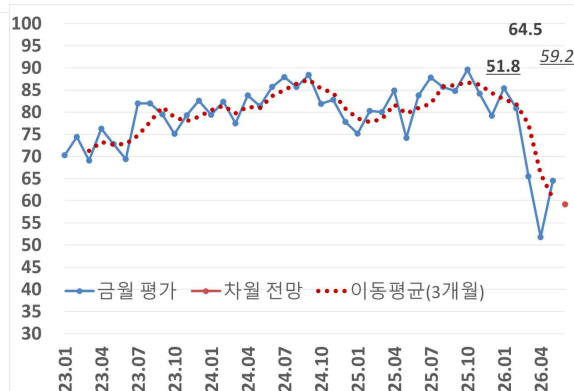
- 자재비<sup>3)</sup> 경기실사지수는 40.1(27.1→40.1)로 전월 대비 다소 상승함(+13.0p). 차월(50.0)에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9.9p), 최근의 지수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임에 유의해야 함.
  - 수도권(22.2→40.1)은 상승(+17.9p), 지방(29.5→27.5)은 소폭 하락함(-2.0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64.5(51.8→64.5)로 상승했으나(+12.7p), 차월(59.2)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5.3p). 여전히 응답업체들은 주요 자재들의 수급난을 토로함.
  - 수도권(50.0→64.5)은 상승(+14.5p), 지방(52.7→58.8)은 소폭 상승함(+6.1p).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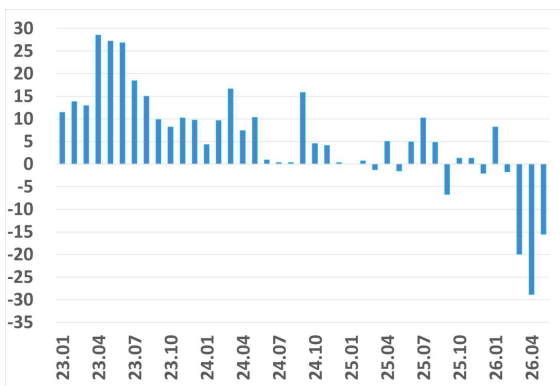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6년 5월 평가	40.1	55.6	40.1	27.5	46.5	12.5
	2026년 6월 전망	50.0	59.6	50.0	45.1	52.5	31.3
자재수급	2026년 5월 평가	64.5	74.2	64.5	58.8	67.3	46.9
	2026년 6월 전망	59.2	74.2	59.2	60.8	58.4	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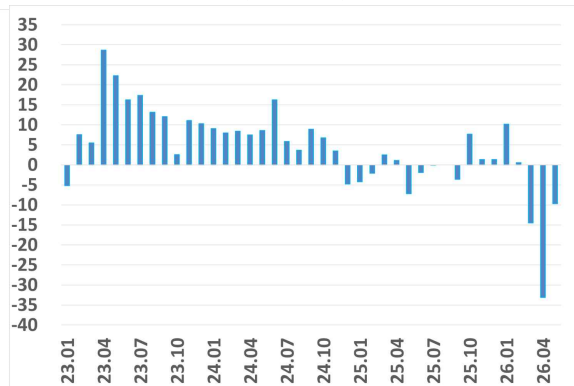
〈자재비 체감〉



〈자재수급〉



〈자재비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자재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2)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음(코로나 이전 시기의 지수는 대략 100정도 수준이었음).  
 3)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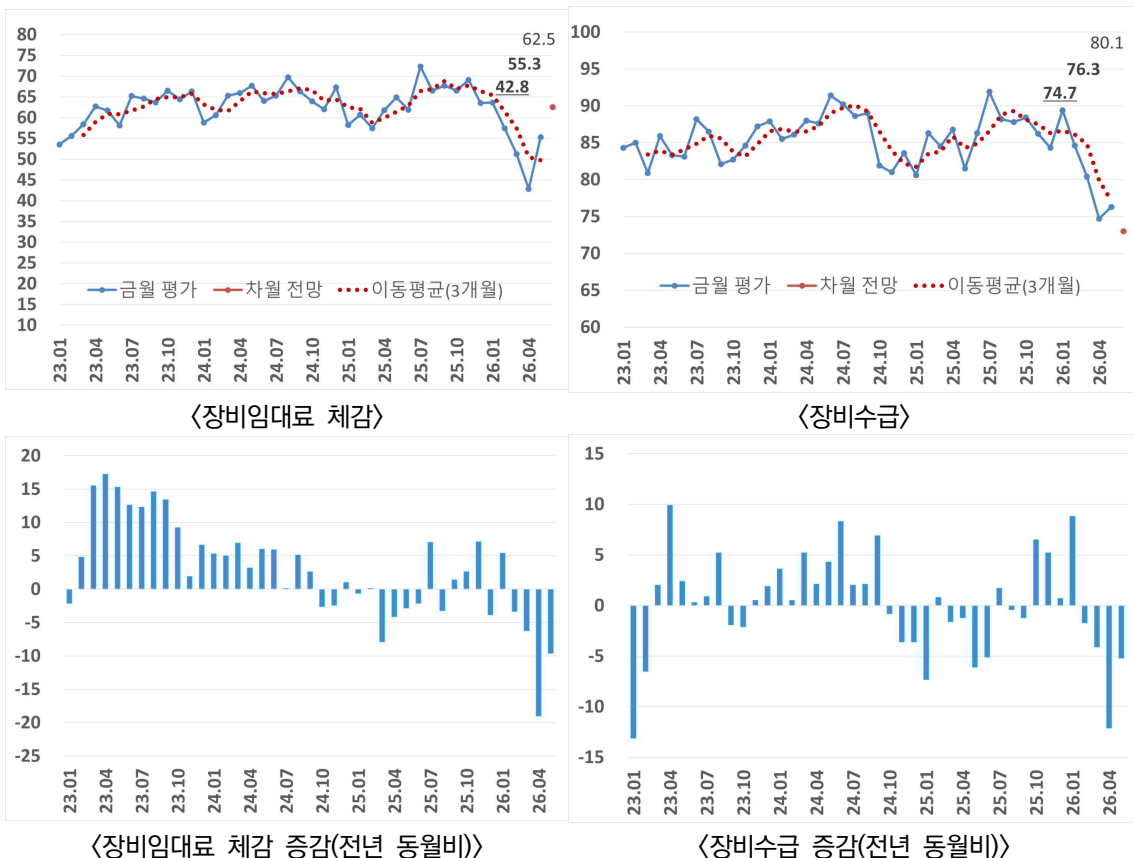
##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 장비임대료지수는 상승, 장비수급지수는 전월 수준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55.3(42.8→55.3)으로 다소 상승했으며(+12.5p), 차월(62.5)에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7.2p). 그러나 최근까지의 유가와 물가변동 등은 여전히 건설장비의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해야 함.
  - 수도권(37.0→55.3)은 큰 폭으로 상승(+18.3p), 지방(45.5→43.1)은 소폭 하락함(-2.4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76.3(74.7→76.3)으로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1.6p), 차월(73.0)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3.8p).
  - 수도권(70.4→76.3)은 소폭 상승(+5.9p), 지방(76.8→78.4)은 전월 수준임(+1.6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임대료 체감	2026년 5월 평가	55.3	64.9	55.3	43.1	61.4	37.5
	2026년 6월 전망	62.5	63.6	62.5	60.8	63.4	50.0
장비수급	2026년 5월 평가	76.3	81.5	76.3	78.4	75.2	68.8
	2026년 6월 전망	73.0	80.1	73.0	74.5	72.3	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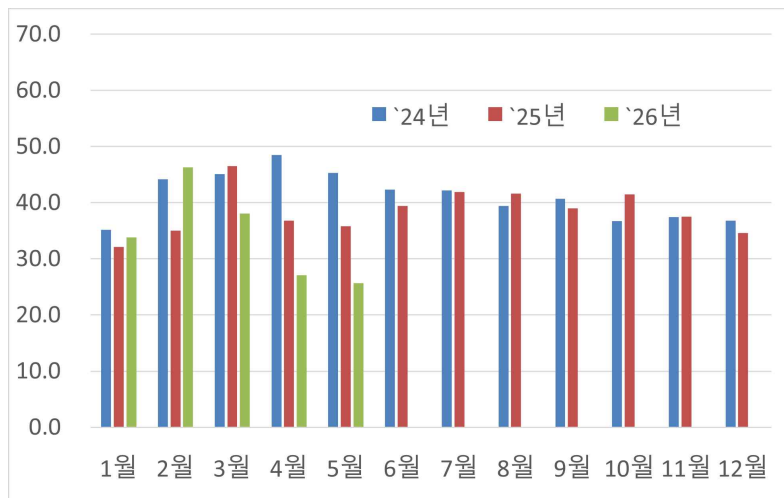


## 참고: 2026년 6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25.7	35.8	25.7	31.4	22.8	18.8
		차월 전망	34.9	39.1	34.9	43.1	30.7	37.5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43.4	50.3	43.4	68.6	30.7	71.9
		차월 전망	42.8	49.7	42.8	68.6	29.7	81.3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42.8	45.7	42.8	70.6	28.7	81.3
		차월 전망	42.1	47.7	42.1	64.7	30.7	71.9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52.0	57.6	52.0	62.7	46.5	68.8
		차월 전망	47.4	55.0	47.4	64.7	38.6	75.0
	자금조달	금월 평가	51.3	53.0	51.3	68.6	42.6	75.0
		차월 전망	48.0	54.3	48.0	62.7	40.6	68.8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64.5	60.9	64.5	52.9	70.3	37.5
		차월 전망	69.1	60.3	69.1	64.7	71.3	53.1
	인력수급	금월 평가	68.4	70.2	68.4	62.7	71.3	59.4
		차월 전망	68.4	70.2	68.4	64.7	70.3	59.4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40.1	55.6	40.1	27.5	46.5	12.5
		차월 전망	50.0	59.6	50.0	45.1	52.5	31.3
	자재수급	금월 평가	64.5	74.2	64.5	58.8	67.3	46.9
		차월 전망	59.2	74.2	59.2	60.8	58.4	43.8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55.3	64.9	55.3	43.1	61.4	37.5
		차월 전망	62.5	63.6	62.5	60.8	63.4	50.0
	장비수급	금월 평가	76.3	81.5	76.3	78.4	75.2	68.8
		차월 전망	73.0	80.1	73.0	74.5	72.3	62.5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최근 3년간의 SC-BSI 비교〉